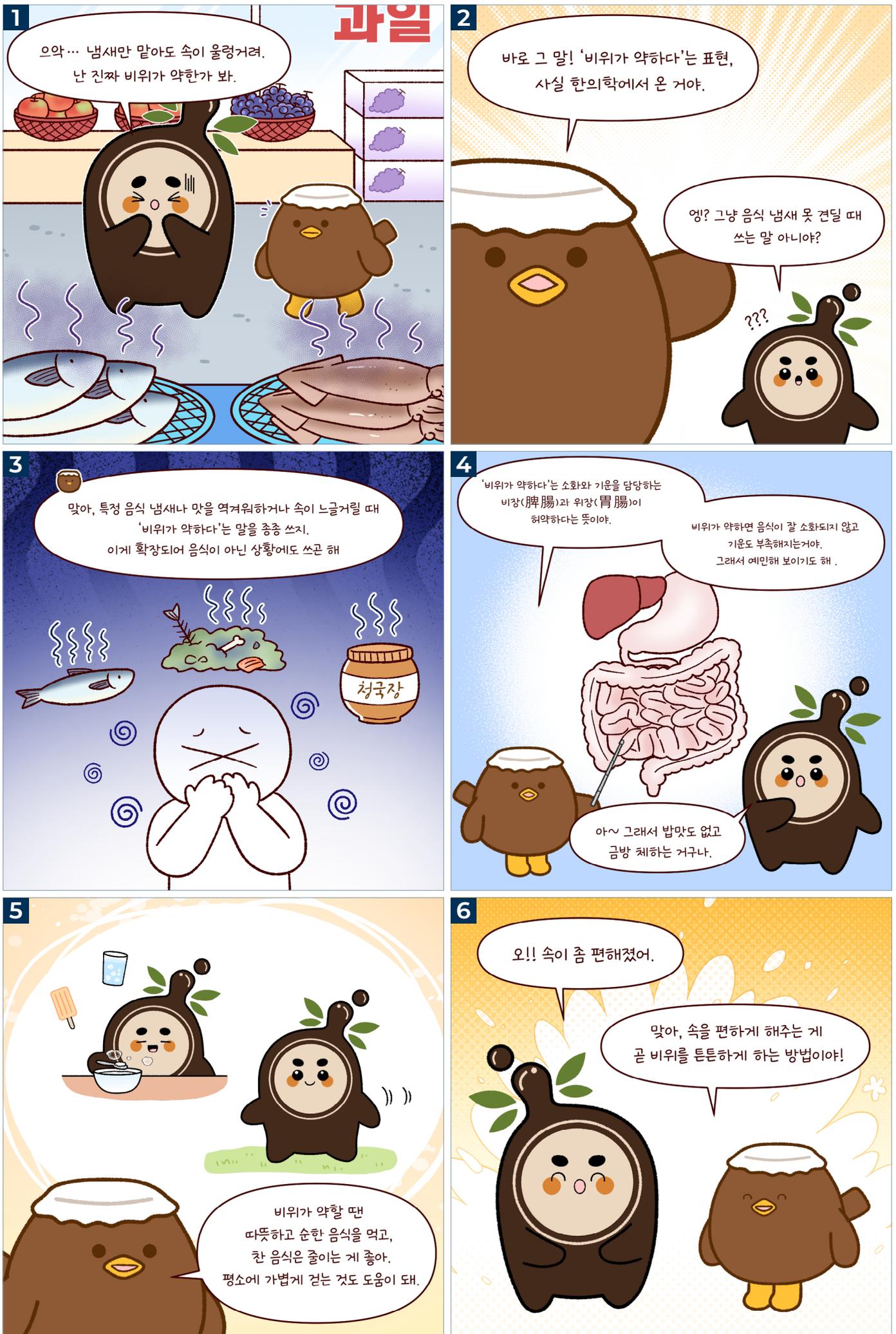


## 한방울과 황단이의 한의약 속 우리말 4. 비위가 약하다



### ‘비위가 약하다’ 란?

특정 음식 냄새나 맛을 역겨워해 잘 먹지 못할 때 “비위가 약하다”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. 이 말의 뿌리는 한의학에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 비장(脾腸)과 위장(胃腸)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온몸으로 보내는 핵심 장부로, 기운과 혈(血)을 만드는 근본으로 여겨졌습니다. 비위가 허약해지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, 쉽게 체하거나 기운이 부족해 피곤함을 느낍니다. 이런 맥락에서 원래 “비위가 약하다”는 말은 단순한 성격상의 예민함은 물론, 몸의 소화기능이 허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. 시간이 지나며 이 표현이 일상 언어로 확장되어, 냄새·맛·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.